



[종합] 이재용 재판 돌아보기
첫바퀴 돈 70차례 재판
05



Economy

코스피	2496.42 (0.00)	코스닥	873.05 (0.00)
금리(미국 3년)	2.17 (+0.02)	환율(원-달러)	1064.80 (-7.20) (12일)

가상화폐 실명제 도입 거부하면 과태료 부과

당국, 벌집계좌 원천 차단

앞으로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자가 실명 확인을 거부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법인계좌 아래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장부 형태로 담아 관리하는 이른바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된다. <관련기사 2·3면>

14일 금융당국이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정착시킨다는 내용 등을 담은 가상화폐 관련 후속·보완 조치를 마련했다.

금융당국은 이달 안에 시행되는 실명확인 입출금 시스템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기존에 가상계좌를 통해 가상화폐를 거래하던 사람들이 실명확인에 응할 경우 가급적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계좌는 입금을 금지하는 가운데 출금만 허용해 점차 규모를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일정 기한 안에 실명전환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과태료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실명확인 절차를 끝까지 거부하는 계좌에 대한

출금 제한도 고려하는 '강력 카드'를 고려 중이지만, 이는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풍선효과가 나타난 '벌집계좌'는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벌집계좌는 법인의 운영자금 계좌로 위장한 사실상의 가상화폐 거래 가상계좌(벌집계좌)다.

후발 거래소들은 일반 법인계좌를 발급받은 뒤 이 계좌 아래에 다수 거래자의 거래를 수기로 담는 방식으로 편법 운영해왔는데, 자금 세탁이나 해킹 등의 사고로 이어질 소지가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금융 당국은 법인계좌 아래 다수 개인의 빈번한 거래가 포착되는 계좌는 아예 중단시키는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가 이달 말부터 도입하는 실명확인 입출금 서비스는 거래자의 실명계좌와 가상화폐 취급업자의 동일은행 계좌만 입출금을 허용한다. 이 과정에서 거래자의 신원이 드러나 청소년·해외 거주 외국인 등 가상화폐 거래시장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채신화 기자 csh9101@

檢·국정원 힘 빼고 警 권한 강화

文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

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
대공수사권, 경찰로 이전

檢 독점 기소·수사권 축소
경제 등 특수사건만 인정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14일 오후 춘추관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정보원(국정원)이 국내 정치 및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간판을 바꿔 단다.

대북·해외에 집중하면서 전문 정보기관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국정원이 갖고 있던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의 (가칭)안보 수사처'로 이관된다.

검찰이 독점하던 기소권과 수사권은 대폭 축소해 경제, 금융 등 특수사건에 대해서만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인정하기로 했다.

대신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 및 기소는 독립기구로 새로 탄생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가, 1차적 수사는 경찰청내에서 역할이 나눠질 '국가수사본부'내 수사경찰이 각각 맡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14일 발표했다.

<관련기사 4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민주화 시대가 열린 후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 왔고,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 이런 정신 아래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출범 직후부터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법무부 탈검찰화 ▲자치경찰제 도입 등 권력기관 개편 방향에 대해 꾸준히 제시해 온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개혁안도 과거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의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른 권력남용 통제는 기본방침에 따라 마련됐다.

특히 국내·외 광범위한 정보수집권과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

관 등 무소불위의 힘을 휘둘렀던 국정원은 그동안 선거 개입과 민간사찰, 거액의 특수활동비 전용 등으로 뼈를 깎는 강도높은 개혁이 요구돼왔다.

이에 따라 과거의 이미지 개선을 위해 또 다시 이름이 바뀌게 됐다. 그러면서 대북 및 해외 정보수입에 전념하고 국내 정치 문제와 대공수사에는 관여하지 않도록 했다.

기소 독점, 직접수사권한, 경찰 수사 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던 검찰도 이들 막대한 권한을 이용해 정치권력화되고,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검찰권을 악용해 온 것 등이 여론의 못매를 맞았다.

이번 개혁방안에 검찰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 수사 축소 등이 담긴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경찰도 국가치안 등을 담당하는 일반경찰과 1차적 수사를 맡는

수사경찰, 그리고 대공수사를 담당하는 안보수사처로 각각 역할이 나뉜다. 특히 지역치안과 가정폭력 등을 수사하는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해 시·도지사가 관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대신 경찰위원회를 통해 몸집이 커진 경찰을 효율적으로 견제하도록 했다.

조 수석은 "개혁방안을 이뤄낼 근본적인 힘은 국민에 있다. 국민 지지에 관심 없이 권력기관 개혁은 안 된다"며 "국민 관심이 있어야 국가 권력기관이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 퇴행적 행태를 안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동의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이뤄진다. 최근 사개특위 논의를 존중하고 경청하겠다"며 "이제부터는 국회의 시간으로, 이 시간이 국회 결단으로 대한민국기를 바로잡을 때로 기억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삼성전자는 지난 12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신규 가전 공장에서 출석 행사 행사를 가졌다. 좌측부터 팀 스킷(미 상원의원), 웨인 아담스(뉴베리카운티 대표), 조윤제(주미 한국대사), 김현석(삼성전자 CE부부장, 사장), 헨리 맥마스터(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랄프 노만(연방 하원의원). /삼성전자

美 세이프가드에 선제대응

삼성, 세탁기 현지생산 시작

삼성전자가 미국 가전 공장의 본격 가동에 나섰다.

삼성전자는 12일(현지 시간)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뉴베리카운티에 위치한 가전 공장에서 김현석 삼성전자 CE(소비자가전) 부문장과 헨리 맥마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출석식 갖고 공장 가동을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이 공장에 2020년까지 약 3억8000만 달러를 투자해 연간 약 100만대의 세탁기를 생산한다.

오는 2월 미국 정부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 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이 공장을 중심으로 미국 현지 시장 수요에 대응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 공장에서 처음 생산한 세탁기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참전용사와 불치병 어린이를 지원하는 자유와 희망 재단(Freedom & Hope Foundation), 가정환경이 어려운 어린이를 지원하는 보이즈 팜과 뉴베리 카운티 박물관에 기증해 의미를 더했다.

헨리 맥마스터 주지사는 "삼성전자가 사우스캐롤라이나 가전 공장을 기회로 미국 시장에서 더 큰 도약을 하길 기대하며, 그 여정을 사우스캐롤라이나가 함께 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 12일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클렘슨 대학 클렘슨,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함께 5년간 제조기술 등의 연구에 공동 투자하는 '팔메토 컨소시엄'을 체결했다. /정은미 기자 21cindium@

애경, 8월 홍대 신사옥 입주... 1300명 '통큰채용'

올해 4600억원 대 투자
AK홀딩스·애경산업 등
계열사 간 소통·협업 기대



애경그룹 홍대입구역 사옥 조감도. /애경그룹

애경그룹이 2018년을 도약의 원년으로 정했다. 그 중심은 체질 개선이다. 먼저 계열사 간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오는 8월 홍대 신사옥으로 본사를 이전한다. 올해 4600억원대의 투자와 함께 1300여명의 신규 채용도 단행한다.

◆홍대 신사옥 입주로 시너지 극대화

채형석 애경그룹 총괄부회장(그룹CEO)은 지난 12일 개최한 신년 임원워크숍에서 "2018년 새로운 홍대 시대를 열어 보다 젊고 트렌디한 공간에서 퀀텀 점프를 하자"며 "특히 쾌적하고 효율적인 근무환경에서 임직원이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기 기대하며 훗날 홍대 시대 개막이 애경그룹의 새로운 도약의 시작

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주문했다.

통합사옥에는 그룹지주회사 AK홀딩스를 비롯해 애경산업, AK캠텍, AM플러스자산개발, AK아이에스, 마포애경타운 등의 계열사가 입주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각 사간 활발한 소통 및 협업 체계가 구축되는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사옥규모는 연면적 기준 약 5만3909㎡(1만6000평)으로 복합 시설동(판매시설·업무시설·숙

박시설·근린생활시설)과 공공 업무시설동 등이다.

오는 7월 준공 목표로 그룹 계열회사에서 이용하는 업무시설(7층~14층) 외에 제주항공에서 운영하는 '홀리데이 인 익스프레스 서울 홍대'(Holiday Inn Express Seoul Hongdae) 호텔이 294실(7층~16층) 규모로 들어선다. AK플라자에서 운영하는 판매시설(1층~5층)이 입주할 계획이다.

신사옥이 완성되면 여행 및

쇼핑, 생활뷰티 등 애경그룹의 소비재 산업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외에도 채형석 총괄부회장은 지난 10년간 지주회사 전환, 이익중심경영, 사업효율화 등을 추진한 결과 성장을 위한 투자여력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하자는 의지를 그룹 임원들과 공유했다.

채 총괄부회장은 "낯은 것들을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자"며 "올해가 애경그룹이 대도약을 해야 할 원년"임을 선언했다.

애경그룹은 지난해 제주항공, 애경유화, 애경산업 등 주요 계열사를 포함한 그룹실적에서 사상 최대 성과를 냈다.

최근 10년간 수익 중심의 경영을 한 결과 2008년 이후 재무구조가 매년 개선됐고 연평균 19%의 영업이익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4면에 계속>

/김유진 기자 ujin6326@